

■ 회원사 소식 ■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육가공정보지에 기재된 사항을 발췌하여 구분정리한 것입니다.

(육가공정보지 203호 : 03.1.20)

● 롯데햄·우유, ISO 인증 3종 경신

(주)롯데햄우유는 02.12.31일 서울 본사와 4개 지역(전주, 청주, 김천, 대구) 공장이 국제표준기구(ISO) 인증기관인 한국품질재단(KFQ)으로부터 3개 항목의 ISO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증 항목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과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3가지다.

● 농협 목우촌 HACCP 인증 획득

농협 목우촌 육가공분사(대표 이현재)는 03. 1. 7일 햄·소세지류에 대한 위해요소관리기준(HACCP)인증을 획득했다고 1.14일 밝혔다.

HACCP는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식품에 혼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준. 이를 위해 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은 지난해 1월부터

HACCP 추진팀을 결성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7월부터 제품 생산에 본격적으로 적용했다.

신건선 목우촌 본부장은 "HACCP제도는 효과적인 식중독 예방대책 중 하나로도 꼽힌다"면서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목우촌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가공정보지 204호 : 03.1.27)

● 대상농장, 하이포크 연1만톤 판매 돌파

대상의 육가공제품 전문 자회사인 대상농장(주)은 지난해 냉장 브랜드 돈육 하이포크'의 판매량이 1만700톤에 달해 업계 최초로 냉장 브랜드육 판매량 1만톤을 넘었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포크 판매량은 1997년 5200톤, 1998년과 1999년 6300톤, 2000년 7300톤, 2001년 9200톤으로 매년 두자리수 성장을 해왔다.

대상농장 관계자는 "하이포크의 판매호조는 생활

■ 회원사 소식 ■

수준이 높아지면서 음식점과 가정에서 냉장돈육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것 주요인"이라며 "올해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총 1만2500톤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 CJ, 지난해 당기순익 1072억 잠정집계

CJ는 2002년 경영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매출액이 2조2,705억, 매출이익 7,307억, 영업이익 1,970억, 경상이익 1,524억, 당기순이익은 1,07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1월22일 공시했다. 이같은 실적은 매출이 전년 대비 1.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각각 4.5%, 110% 늘었으며, 순이익은 100% 늘어난 수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목우촌,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돼지고기'

농협 목우촌 육가공분사(사장 이현재)는 지난해 12월17~30일에 (주)농협유통 양재동?창동점을 비롯해 성남종합유통센터와 고양종합유통센터·신촌하나로클럽 등 모두 5개의 대형 농협유통점에서 실시한 '목우촌 프로포크 불우이웃돕기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구입한 <프로포크> 돼지고기를 각 판매장 지역내 고아원과 양로원에 최근까지 전달했다.

(육가공정보지 205호 : 03. 2. 5)

● 동원F&B, 당기순익 경상이익 2배이상 증가

동원F&B는 수익구조개선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72억1291만원으로 전년의 132억3600만

원에 비해 105.6% 증가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또 경상이익은 404억8560만원으로 전년의 181억1517만원보다 123.4% 증가했다고 밝혔다.

(육가공정보지 206호 : 03. 2. 10)

● 한냉 직제 개편

한냉(회장 차상협)은 급변하는 식육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직제를 전문분야별 부사장제로 개편했다. 한냉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문성 있는 경영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재일 부사장을 축산무역담당 부사장으로 장사일 전무를 영업담당부사장으로 임명했다. 또 경영관리담당 부사장으로 한국 마사회 이사와 서울신용정보주식회사 부사장은 지낸 김덕락씨를, 중부공장 담당 부사장에 제일농장 본부장과 안성축산진흥공사 공장장을 역임한 윤석두씨를 새로 발탁했다

(육가공정보지 207호 : 03. 2. 17)

● CJ 최고급 돈육 생산 판매 계획

CJ그룹이 최고급 돼지고기를 생산,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CJ 축육사업본부에 따르면 일본의 '흑돈'처럼 최상품인 돼지고기를 위탁 생산, 이를 요구한 고객에 한해 공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CJ 축육사업본부는 금명간 일본을 방문, '흑돈'의 사육 및 판매과정을 둘러보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J

그룹은 또 사료사업본부를 통해 이에 맞는 양돈사료를 개발토록 하는 등 '최상품' 돼지고기를 생산, 판매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한편 CJ 축육사업본부는 현재 '정품진'이라는 상품명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 (주)선진, HACCP 인증 획득

(주)선진 육가공이 지난 2월 11일자로 축산물가공품류의 분쇄가공육제품 부문에서 HACCP 인증을 획득했다.

선진은 지난 95년부터 HACCP 시스템을 자체 도입하여 2002년까지 자체 운영을 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에 농림부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을 통해 선진은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 향상으로 대외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우수역량을 갖춘 우량회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하림, 영양사협회 공동 결식아동 지원

(주)하림(대표 김홍국)이 대한영양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결식아동 1백명에게 연3천6백만원 정도의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각 초등학교가 추천하는 정부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극빈자 명단을 검토해 결정, 오는 3월부터 결식아동들의 급식통장으로 직접 송금할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대한영양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하림이 생산하는 다양한 닭고기 가공제품을 간식 및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하림은 이번 결식아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7일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팔래스호텔 12층 코스모스홀에서 대한영양사협회와 정식조인식도 가질 예정이다.

(육가공정보지 208호 : 03. 2. 24)

● CJ, 어린이요리책 4천부 복지시설 배포

CJ는 전국 빈곤아동공부방과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단체 1000여곳에 어린이용 요리책 '토리의 요리놀이' 4000부를 무료 배포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거르는 주된 이유가 식료품 부족보다는 스스로 음식을 만들 줄 모르는 채 방치되기 때문이라고 판단, 어린이들 스스로 요리를 만들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토리의 요리놀이에는 밥짓는 법부터 달걀프라이, 샌드위치 같은 기초적이고 간단한 요리부터 떡볶이와 맛탕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요리 등 총 57가지 조리법이 소개돼 있으며, 친근하고 쉬운 일러스트로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파이낸셜)

(육가공정보지 209호 : 03. 3. 3)

● 도드람푸드 가공장 HACCP 획득

도드람푸드 가공장이 호주 IQS로부터 포장육 및 냉동식품 부문에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도드람푸드는 ISO9001 및 KS, G마크, 정육생산공장

■ 회원사 소식 ■

HACCP 인증 획득에 이어 냉동식품 부문에서도 HACCP를 획득함으로써 식육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까지 위해요소관리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 축산물 품질인증시대를 주도하게 되었다

(육가공정보지 211호 : 03. 3. 17)

● 동원F&B, '델리꼬송 녹돈햄'

"델리꼬송 녹돈햄"은 동원F&B의 주력 신제품으로 전남 보성산 녹차잎이 혼합된 사료를 먹고 자란 녹돈(綠豚)으로 만든 프리미엄햄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이 제품은 현재 월평균 3억원을 웃도는 판매실적을 올리며 회사의 주력제품으로 떠올랐다.

회사측은 "최근 열풍처럼 번진 녹차트렌드와 맞아 떨어진 덕분"이라며 "특히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나지 않아 자녀를 둔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소개했다.

또한 녹돈햄은 전분과 방부제도 전혀 쓰지 않고 100% 국내산 녹돈과 고급 천연재료만을 사용했다.

제품은 녹돈원너 1백50g, 2백50g, 녹돈프랑크 2백g, 녹돈샌드위치햄 1백g, 3백g 녹돈로인햄 3백g, 녹돈햄(스모크) 1kg 등 7개 품목이 있다.

(육가공정보지 212호 : 03. 3. 24)

● 진주햄, '카레맛 천하장사' 출시

(주)진주햄(대표 박재복)이 '카레맛 천하장사'를 출시했다. 식육증진이나 체내 영양분의 흡수력 증

진, 위장기능 강화, 항암효과에 특효인 카레를 넣어, 은은한 향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다.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어린이 영양간식에 좋을 뿐만 아니라 칼로리가 낮고 담백하여 쉽게 질리지 않아 아이트용으로 좋다.

(육가공정보지 213호 : 03. 3. 31)

● 롯데햄·우유, 신상품 '고기부꾸미'

(주)롯데햄·우유(대표 남정식)는 전통음식 '부꾸미'를 상품화한 '고기부꾸미'를 출시했다. 신제품 '고기부꾸미'는 돈육과 찹쌀로 만든 '피'에 감자 고로케 '속'을 넣어 담백한 피의 맛과 고로케 속이 적절히 조화된 새로운 맛으로 바쁜 현대인들이 빠르게 조리해 먹을 수 있다.

● 대상, 신제품 '쇠고기찜쌀구이' 등 출시

대상(주)(대표 이덕림)은 간단히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쇠고기찜쌀구이와 김치떡스테이크를 출시했다.

쇠고기 찜쌀구이는 쫄득한 찜쌀과 쇠고기를 잘재워 신선한 야채를 혼합하여 오븐에 구워낸 고급 산적류로 먹음직스런 갈비살 모양으로 만들어 외관 차별화한 제품이다.

김치떡스테이크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하여 김치와 떡을 넣고 오븐에 구워낸 고급 스테이크 제품으로 전통 김치의 맛과 떡의 식감을 고급 함박 스테이크에 조화시킨 Fusion타입 제품이다.

● CJ, 신상품 '햄스빌 시당토' 출시

CJ(주)(대표 손경식)는 어린이들이 야채와 친해질 수 있도록 시금치, 당근, 토마토 등의 야채가 들어 있는 비엔나 '햄스빌 시·당·토'를 출시했다. 시금치의 클로로필, 당근의 카로틴, 토마토의 라이코펜 등 야채에서 직접 뽑아낸 천연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색깔도 그린(시금치), 옐로(당근), 레드(토마토)의 색상을 띠고 있어 먹는 재미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일반 비엔나 제품과 달리 혼연 공정을 거치지 않고 스팀기에 찌는 방식으로 만들어 맛이 더 담백하고 부드럽다.

(육가공정보지 214호 : 03. 4. 7)

● 하림, 오는 14일에 신제품 발표회

(주)하림(대표 김홍국)에서는 금번에 국내 최초의 저지방 햄인 챔(Cham)을 비롯 하얀속살햄(8종), 치킨파이(4종) 등의 신제품을 출시하여 다음과 같이 출시기념회를 갖는다.

- 일시: 2003년 4월 14일 11시
-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룸

(육가공정보지 217호 : 03. 4. 28)

● 하림, 닭고기 일본수출 포문

하림(대표 김홍국)이 닭고기 수출의 닳을 올렸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지난 23일 신선 다리정육 5톤(1컨테이너) 수출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10톤의 닭고기를 일본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점차 수출량을 늘려 올해 안에 2000톤을 수출할 예정이

다. 이번에 수출되는 닭고기는 전량이 '하림' 브랜드로 수출되는 것으로 하림은 규슈지역(후쿠오카) 대형매장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되 6월 중순까지 6개 매장으로 프로모션 매장을 확대, 하림 닭고기의 우수성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5월 말부터는 오사카 지역까지 수출선을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도시별로 자체 대리점을 운영,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장순 해외사업팀 부장은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일본소비자들의 인지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초가을 닭고기 성수기까지는 하림 닭고기를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 롯데햄·우유, '황토포크' 출시

롯데햄·우유(대표 남정식)는 기존 일반 돼지고기보다 맛, 육질과 건강 기능성 면에서 한차원 높은 돼지고기 '황토포크'를 출시했다.

황토포크는 황토속에 함유된 일라이트 성분을 사료와 함께 배합·급여하여 생산되는 돼지고기로 육즙이 풍부하고 보수력이 강하여 영양분 유출이 적다. 또한 일라이트 유해세균 정균작용으로 위생적이며, 항생제 잔류가 없다. 저지방과 저콜레스테롤이며, 토코페롤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

● CJ(주), 포코포코 등 신제품 출시

CJ(주)(대표 손경식)는 컵 용기에 포장해 간편한 Mobile 미트 스낵 '포코포코'를 출시했다. 100% 국산돈육으로 보존료, 전분을 전혀 사용하지

■ 회원사 소식 ■

지 않은 한 입 크기의 간편한 스낵으로 데리야끼 맛의 소스와 포크가 함께 들어 있다. 전자레인지에 30분만 데우면 된다.

또한 감자 샐러드를 고기로 말아낸 고급 말이 요리인 '감자샐러드 고기말이'를 출시했다. 자녀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 다양한 야채를 넣어 감자샐러드를 만들어 말고 그릴에 살짝 구워내 고소하고 쫄깃하다.

(육가공정보지 218호 : 03. 5. 5)

● 육가공시장 '저지방 저염도' 바람

-최근 식문화 트렌드가 기능성에서 저지방, 건강 등으로 옮겨가면서 국내 육가공 캔 햄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저지방·저염도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CJ가 최근 염도를 낮춘 프리미엄급 스팸을 출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팸은 미국 호텔사보다 염도를 25% 내려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맞춤으로써 지난해 매출 423억원을 달성, 42.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롯데햄·롯데우유는 주력 상품인 로스팜 TV 광고에서 짜지 않다는 점을 강조, 저염도 마케팅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목우촌은 100% 천연해조 칼슘을 첨가, 미네랄이 풍부한 '포카'를 출시하고 육가공 캔 시장에 진출했다.

하림도 닭고기의 특성을 살린 '챔'을 출시하면서 캔 햄 시장에 진출했다. 육가공 업계 관계자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물성 자체가 달라 마케팅 방향은 다르지만 기능성보다는 저지방, 저염도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신문)

● (주)하림, 닭고기 요리정보 제공

(주)하림(대표 김홍국)은 최근 닭고기로 만든 프리미엄 캔 햄 '챔' 출시와 함께 홈페이지(www.halim.co.kr)를 통해 새로 개발된 다양한 닭고기 요리 정보를 제공한다.

● CJ(주), 다양한 육가공 신제품 출시

CJ(주)(대표 손경식)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도록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쿠스타는 닭고기를 주원료로한 제품으로 기존의 돼지고기 캔햄에 비해 지방이 1/3, 칼로리가 1/4이 적으며 굵지 않고 먹는 캔햄이다.

또한 비엔나 제품으로 고기 입자를 살린 햄스빌 비엔나, 자연껍질 제품의 참나무 향이 나는 참비엔나, 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칼집넌 비엔나 등을 출시했다. 이외에도 국산돈육으로 만든 냉장보관 제품 델리레토 햄버그스테이크·미트볼, 담백한 아메리칸 후랑크를 출시했다.

한편, CJ는 중국법인을 통해 육가공 제품 1500박스(6만개)와 다시다 500박스(4만개) 등 1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중국 사스 피해지역에 지원한다.

(육가공정보지 220호 : 03. 5. 19)

● 한냉, '돈까스', '치킨까스' 출시

한냉(대표 신건호)이 100% 국내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이용한 돈까스, 치킨까스를 출시했다.

특히 한냉은 하디스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주)세진푸드시스템과 제휴,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육가공시장에 뛰어 들었다. 한편 한냉은 이번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수제햄, 양념육 등 다각화된 육가공 제품을 기획 중에 있으며 가열처리육 등의 개발로 수출도 모색하고 있다.
(미트뉴스)

● 신라식품,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주)신라식품(대표 박종배)은 지난 13일 포장육(돼지고기)부분에 대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 우수 축산물(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되었다.

● 대상, 1분기 영업이익의 243억원

대상(대표 이덕립)은 올해 1/4분기 영업이익이 24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6%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매출은 13.9% 증가한 2천965억원이며, 순이익은 153% 증가한 33억원이다. 1분기 영업이익 243억원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94.9%에 이르는 수치라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 목우촌, 육가공 월매출량 900톤 돌파

농협 목우촌이 육가공 사업이 사업진출 7년만에 월매출량 900톤을 돌파했다.

목우촌이 밝힌 지난 4월말 실적에 따르면 한달 동안 햄 등 육가공제품 매출실적은 총 937톤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우촌은 “매출실적 900톤 돌파는 돼지콜레라 및 수입축산물이 증가하고 있고, 경쟁사들의

고급 신제품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했다.(한국정보문화)

● CJ, 간식 소시지 ‘맥스봉’ 출시

CJ(대표 손경식)는 새로운 간식소시지 맥스봉(오징어, 치즈)을 출시했다. 신선한 명태속살에 통오징어(15% 이상) 또는 통치즈(15%이상)가 쪽쪽 박혀있어 맛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가 있는 제품이다. 맥스봉 오징어는 기존의 미니소시지 제품보다 지방이 1/2 감소된 제품이고, 맥스봉 치즈는 고단백, 칼슘함유(100G 기준 일일권장량 16%)제품이다.

(육가공정보지 221호 : 03. 5.26)

● 목우촌 닭고기등급판정시범사업 참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의하면 농협 목우촌(충북 음성 소재)이 오는 6월 2일부터 닭고기등급판정시범사업에 참여한다.

● 하림 닭고기 캔햄 <참> 출시 50일만에 8억원 판매

- 햄 시장에 닭고기 열풍 거세다
- 돈육 위주 햄시장, 하림 2.9% 저지방 캔햄<참> 출시로 요동
- CJ도 저염도 어필, 닭고기 캔햄 선보이는 등 확산일로 햄시장에 하얀색 닭고기 열풍이 거세다. 지금까지 햄하면 돈육(豚肉) 위주의 선흥색 햄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국내 최대의 닭고기 전문기업인 (주)하림(대표 김홍국, www.halim.com)

■ 회사 소식 ■

닭가슴살을 주재료로 만든 2.9% 저지방 프리미엄 캔햄 <첵>을 출시하면서 닭고기 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는 것.

하림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처음 시장에 선보인 <첵>은 출시 50일만인 5월 29일까지 8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는 애초에 하림이 예상했던 월 3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판매고.

이에 따라 하림은 현재 하루 2만5천개인 생산규모를 10만개로 늘리기 위해 생산라인 증설에 나서는 등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빈 캔을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라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익산도계공장 화재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새로 출시한 닭고기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재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하림의 설명이다.

이처럼 닭고기햄 <첵>이 예상보다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100% 국내산 닭가슴살을 원료로 하여 단백질이 풍부하고, 기존햄보다 지방이 낮은 2.9% 저지방 건강햄이라는 제품 컨셉과 이에 맞춘 마케팅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으로 하림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첵> 출시에 맞춰 단 한군데 할인매장에서 펼친 14일 간의 판매행사에서 무려 2억2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릴 정도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이는 광고 등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조건에 올린 성과라 앞으로 갈수록 저지방 닭고기 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하림은 내다보고 있다.

참고로 하림은 캔햄 외에도 '하얀속살'이란 브랜

드로 슬라이스햄을 비롯해 6종의 닭고기 햄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하림의 이기왕 이사는 " 닭고기햄의 판매가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닭고기의 우수성이 바탕이 되었고, 최근 소비자들이 건강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지향하는 제품 개발과 리치마켓(Rich-Market)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프리미엄 닭고기 햄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되고 건강,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림 뿐 아니라 최근 CJ에서도 닭고기캔햄을 출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 약 5천4백억원으로 예상되는 햄시장에서 닭고기햄의 비중이 지난 해 3%에서 올해는 8%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출시 : 2003.4.10 (신제품발표회 2003.4.14)

■ 4월 매출액 : 3억6천 <출시일부터 4월30일까지>

(4월 17일부터 이어진 14일간 단 한군데 할인매장에서만 행사를 통해서 2억 2천 만원을 판매)

■ 5월 매출액 : 4억4천 <5월29일 기준>

■ 누적 매출액 : 8억 <출시일부터 5월 29일 현재까지>

■ 소비자가 : 200g 2,300원 / 340g 3,600원